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찬
파견국가	독일	파견도시	Brandenburg an der Havel
파견대학	Technische Hochschule Brandenburg	파견기간	2015.09 ~ 2016.07
귀국여부	아니오 2017.07.23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THB(Technische Hochschule Brandenburg)의 위치는 베를린에서 기차로 약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p> <p>규모와 시설은 순천향대와 비교해보자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었고 캠퍼스도 평지에 위치해 캠퍼스를 거닐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학생식당에서의 점심식사는 약 2유로 정도로 굉장히 싸 편입니다. 또한 체육관에서는 날 마다 다르지만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용, 2인용, 4인용, 6인용 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숙사와는 달리 방은 무조건 혼자 쓰게 됩니다. 또한 큰 차이점은 주방이 있다는 것입니다.</p> <p>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베를린에 비해서 밤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사실 할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도 기숙사에서 걸어서 약 5~10분정도에 위치해 있고 수영장도 있어 갖출 건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p>
2015-2학기 수업	<p>수업 내용은 다 모든 수업이 파워포인트나 교수님이 준비하신 수업물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재는 필요없었습니다. 한국 수업과 다른점은 토론형식의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1대 다수 형식의 수업이 아니라 다대 다의 수업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등의 다른 의견들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p> <p>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독일어 수업입니다. 여기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즐겼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추천과목은 딱히 없습니다. 다 각자의 수업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토론형식의 수업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또 그것만의 느낄 점과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

2016-1학기 수업	이번 학기에는 사실 학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저번 학기보다는 별로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업방법 수업내용 또한 앞서 기술했듯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생위주의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학기의 수업들은 거의 다 지루해서 추천하거나 비추천할만한 수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학기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비자나 보험문제, 도시 둘러보기, 대다수를 교환학생들과 하루종일 같이 다니면서 무언가를 보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져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하이케 볼프씨가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공지도 해줍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느낀 독일의 날씨는 한국과 비교해서 겨울은 조금 덜 춥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특히 한국과 비교해서 습한감은 없습니다. 덥긴 덥지만 끈적지근한 습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비가 가끔씩 소나기처럼 몇 번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조금은 날씨가 우울할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나라 사람들이 해가 뜨면 태닝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전	독일의 안전 상태는 사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에서도 밤 늦게 다녀도 별 문제가 없었고 교통수단도 다 다닙니다. 밤버스나 우반 에스반 등등 밤의 도시라는 베를린의 이미지와 답게 안전합니다. 여기 동네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친구들과 밤 늦게 공원을 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금 멀리 돌아다닌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견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이름은 Wohnheim으로 독일어로 기숙사라는 말입니다. 기숙사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방도 있고 방도 따로 혼자 씁니다. 규칙도 따로 없습니다. 한국 기숙사와 같이 통금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탁기를 한번 쓰는 비용은 2.5유로로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숙사는 사실 룸메이트, 플랫메이트가 어떤지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좋은 플랫메이트들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학교에 온다면 싼 가격에 이 기숙사에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p> <p>제가 주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 기호에 맞게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mensa라고 독일어로 학생식당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가격도 2유로에서 2.5유로까지 저렴합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교통	<p>학교는 기숙사 바로 앞에 있어서 걸어다녔고 주요도시인 베를린을 갈 때에는 트램을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 그 후에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갈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학생이면 학생증을 발급받는데 이 학생증으로 브란덴부르크 주와 베를린을 공짜로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이 학생증과 함께라면 공짜입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항공료는 왕복 약 1,200,000 원	
Fees	130 유로 = 약 17만 6천9백원	
보험료	독일 보험 30유로 = 약 3만 9천원	
숙소	195 유로 = 약 25만 6천원	
식비	식비 한 달에 약 200유로 = 26만 2천원	
교통비	해당없음	
책값	해당없음	
기타1		
기타2		
합계	1,935,000 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에 여행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국제 면허증을 끊어 오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독일에서 거의 1년을 지내면서 느낀건 세상은 진짜 넓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사람들과 경쟁을 해야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난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너무 틀에 박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기들 할 거 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사람들의 각박한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한 번 뿐인 제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고 대학원 학위를 유럽에서 취득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원래 스페인을 생각했는데 독일이라는 매력적인 나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언어를 배워가는 재미를 느껴서 더욱 더 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Werder(Havel)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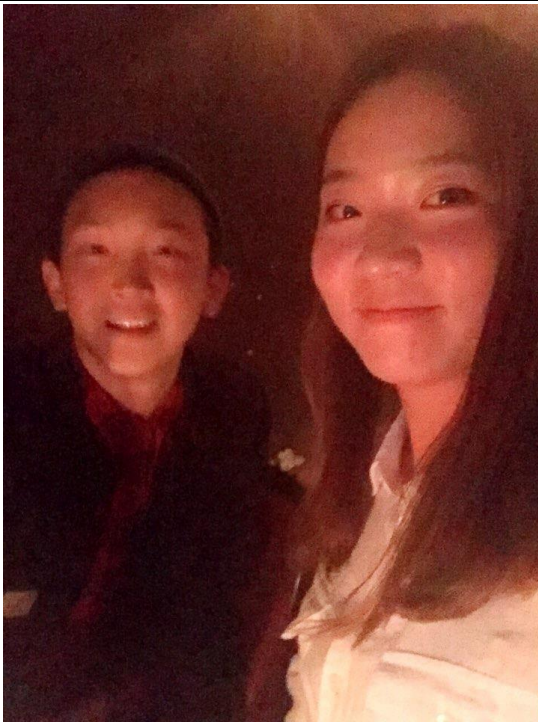
Campusfest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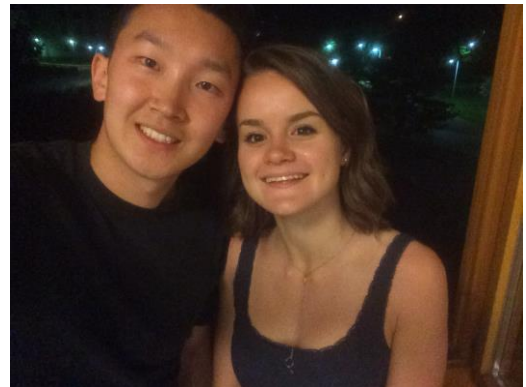
플랫메이트들과 세마 에스마와 함께



Werder(Havel)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에서



친구와 함께 베를린 어느 바에서



프랑스 친구 모디와 함께